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11월 1~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11월 경제 동향

- '25년 10월 베트남의 수출입 총액은 USD 815억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
 - 1~10월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USD 7,624.4억 기록
 - 수출은 USD 3,910억, 수입은 USD 3,714.4억으로 각각 16.2%, 18.6%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는 USD 195.6억 기록
 - 무역 상대국별 교역 수지는 대미 흑자가 USD 1,11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으며 대유럽 무역흑자는 USD 322억으로 11.2% 증가
- '25년 10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 USD 315.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 FDI 집행액은 8.8% 증가한 USD 213억으로 5년래 동기 최고치 기록
 - 국가별 신규 투자 규모는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순
 - 지역별로는 박닌성, 호치민시, 하이퐁시가 가장 많은 신규 투자액 유치
- '25년 1~10월 하노이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 USD 3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배 증가
 - 말레이시아 부동산 기업 Gamuda Land의 엔서파크 사업에 대한 USD 11.2억 추가 투자가 주요 사업으로 포함
- '25년 1~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25% 상승
- 베트남, '26년 최저임금 평균 7.2% 인상
 - 베트남 정부는 '26년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한 시행령 293호(293/2025/ND-CP)을 발표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 임금 체계를 차등 적용 중이며, 1지역은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 등 대도시 포함

2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르엉 쯔엥 베트남 국가주석,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및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회담 진행
 -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민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안보·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르엉 쯔엥 주석은 베트남과 한국이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공고해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젠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 베트남 총리, 국제금융센터 11월 가동 지시
 - 베트남 정부는 당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지침, 국회 결의안에 따라 연내 호치민과 다낭 2곳에 IFC 설립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계획 중인 부지 면적은 호치민 899ha, 다낭 300ha
 - 팜 민 쩌 총리는 IFC 설립 회의에서 11월 중 센터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가속화를 촉구
 - 팜 민 쩌 총리는 베트남의 IFC가 쩌 총리를 수장으로 한 운영 위원회와 두 지역에 각각 설치되는 이사회, 감독 기관 1곳, 그리고 두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 1곳으로 구성될 것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센터는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경쟁력 제고와 자원 유치에 방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
- 박닌성, 자빈공항(수도권 제2공항) 토지수용 착수
 - 박닌성 정부는 수도권 제2공항이 될 자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
 - 당국에 따르면 르엉파이 지역 313ha가 자빈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로 수용될 예정이며, 토지 보상 및 부지 정리에 VND 1.4조 (USD 5천만) 투입 계획
 - 사업비 약 VND 197조(USD 75억)이 투자되는 자빈공항은 전체 부지 면적만 약 1,884ha로, 완공 시 규모면에서 남부 동나이성 5,000ha 룡탄국제공항에 이어 베트남 2위 공항이 될 예정

3 베트남 기타 동향

- 베트남-중국 국경철도, 12월 중 착공 예정
 - 투자자인 철도사업관리위원회는 중국 국경철도와 이어지는 라오까이역, 푸토역, 박홍역, 르엉띠이역, 하이즈엉남역 등 1단계 사업에 속한 5개 역사를 12월 19일 착공할 예정
 - 본 사업은 노선에 위치한 각 역사와 역사 광장 연결 인프라를 건설하는 USD 8,740만 규모 1단계 사업과 철도 시설을 건설하는 USD 60억 규모 2단계 사업으로 구성
 - 현재 건설부는 현장조사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기본 설계 후 본 설계 준비 등을 철도위에 지시한 상태이며, 경로상에 위치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부지 정리를 진행 중
- 빈그룹, 호치민 벤탄시장 지하 12.5ha 복합개발 추진
 - 빈그룹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벤탄시장 지하 공간 개발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
 - 빈그룹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르면, 벤탄 지역 지하는 주차장 및 도시철도 역사, 기술 인프라, 상업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 1호선 벤탄역을 제외하면 상업 또는 주차 시설은 전무한 상태라며, 지하 공간 복합 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 승인을 시 인민위원회에 요청
 - 빈그룹은 이를 통해 도시철도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상업 및 서비스 시설과 지하 주차장을 집중 건설해 지상 공간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
 - 앞서 호치민시는 약 45,000m² 규모 벤탄 지하 상업 센터 조성을 계획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은 수년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호치민시는 도시 개발 방향에 따라 지하 개발을 통해 상업과 서비스 시설, 도시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지상 부지를 대중교통과 보행자 전용도로 용도로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하노이-하롱 고속철도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베트남 건설부
- (사 업 비) VND 141조 (USD 54억)
- (사업내용) 총 연장 124km
- (추진계획) '30. 완공 목표

- (주요사항) '25년 11월 부총리가 승인한 2021~2030년 국가철도 개정 계획 하노이-꽝닌(하롱) 고속철도가 포함됨
 - 하노이-꽝닌 고속철도는 하노이 꼬로아역부터 박닌성 자빈 국제 공항을 거쳐 꽝닌성 하롱짚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완공시 지역 간 연결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서 빈그룹은 '25년 7월 최고 속도 350km/h의 하노이-꽝닌 고속 철도에 대한 투자 의사를 정부 당국에 타진한 바 있음

②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2호선(벤탄-탐르엉)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USD 21억 (VND 48조)
- (사업내용) 총 연장 11km, 10개 역(지상 1개, 지하 9개)
- (추진계획) '26.1. 착공 / '29. 개통 목표

- (주요사항) 기존 계획은 ODA 차관(ADB, KfW, EIB 등) + 정부 자금 이었으나 정책 변화로 ODA 대신 정부 예산 + 민간 자본으로 전환
 - 호치민시 도시철도 관리위원회(MAUR)는 '25년 10~12월 조정된 환경영향평가(EIA) 보고,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고, '26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메트로 2호선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승인 절차를 재시행하지 않고 결의안 188/2025/QH15의 특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